

I. 문학[단행본] 실적을 제출하실 때 유의사항

작품정보[작품명·세부장르·작품수록면·작품분량·성격 등], 발행정보[발행처·발행일·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참여정보[신청자명·신청자 역할] 등이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II. 문학[단행본] 실적 제출자료 예시

아래 ① + ②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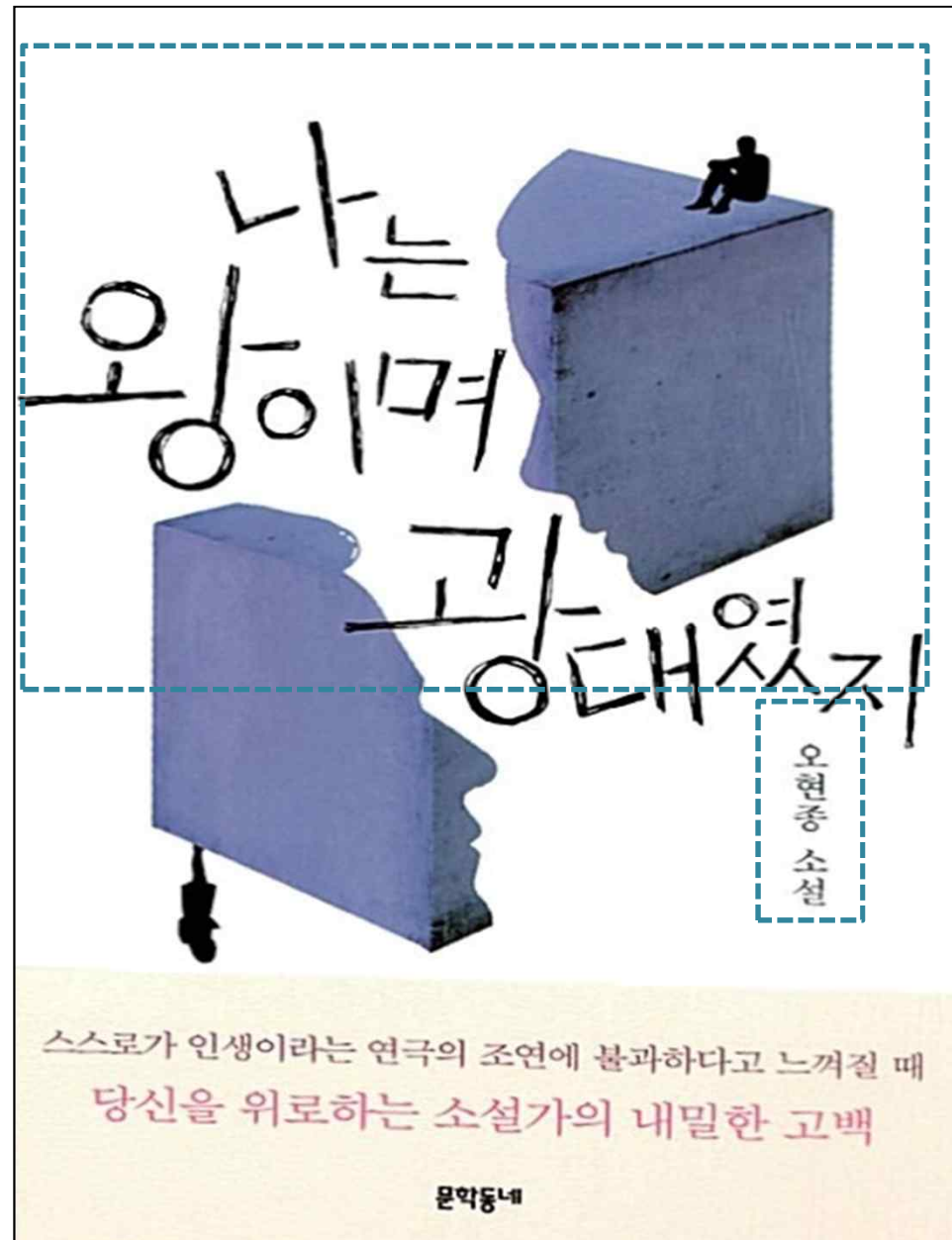
①

표지 + 목차 + 발행정보면[발행처, 발행일[연/월/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 등]

②

작품 수록면[시는 3편 이상, 소설, 수필 등 작품이 여러 면인 경우 일부 발체]

①-1. 표지



제 목

신청자명

세부장르

①-2. 목차



부산에서	_007
K의 어머니와 면회를 갔다	_033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	_063
연금생활자와 그의 아들	_091
난장이의 죽음에, 나는 잘못이 없다	_115
모든 것이 붕괴되기 이전에	_139
약의 역사	_165
호적冊을 읽다	_189

발문 | 엮임한 동급생 같은 윤경희(문학평론가) _213

작가의 말 _225

목 차

①-3. 발행정보면

제목·신청자명

발행일
(연, 월, 일)

발행출판사명

ISBN

문학동네 소설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
© 오현종 2017

초판인쇄 2017년 3월 20일
초판발행 2017년 3월 30일

지음이 오현종
펴낸이 엄현숙
책임편집 정은진 | 편집 김내리 이상근 이상술
디자인 윤종윤 유현아 | 마케팅 정민호 박보람 이동엽
홍보 김희숙 김상만 이현희
제작 강신은 김동욱 임현식 | 제작처 영신사

펴낸곳 (주)문학동네
출판등록 1993년 10월 22일 제100-2009-000045호
주소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10
전자우편 editor@munhak.com | 대표전화 031) 955-8888 | 팩스 031) 955-8855
문의전화 031) 955-3576(마케팅) 031) 955-8864(편집)
문학동네카페 <http://cafe.naver.com/mhdn> | 트위터 @munhakdongne

ISBN 978-89-546-4482-2 03810

* 이 책의 판권은 저자와 문학동네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양측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2017005968)

www.munhak.com

② 작품 수록면

[시 작품은 3편 이상]
[기타 장르는 일부 발췌]

2013년 2월에서 12월까지 나는 부산에서 지냈다.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 두 달 넘게 지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주소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부산에는 아무 연고가 없었다. 그곳에 가본 적이라곤 1박 2일의 겨울 여행과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대절 버스를 타고 돌아온 어느 일요일이 전부였다. 부산역 인근 웨딩홀에서 결혼한 친구는 대학 동창으로, 신입생 때 그녀의 부산 집 창문으로 바다가 보인다는 말을 듣고 잘 알아듣지 못한 기억이 있다. 어떻게 아파트에서 바다가 보일 수 있느냐 몇 차례 묻자 그녀의 눈가가 차츰 일그러졌던 기억도. 얼굴을 못 본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입으로 웃고 눈으로 우는 사람을 보면 이따금 그녀가 떠올랐다. 어쩌면 그녀의 눈꼬리가 길어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 가운데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황선생 한 명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바닷가에서 일 년 살아보지 않을래요?”

어느 저녁, 황선생은 예고 없는 전화로 물었고, 나는 그러겠노라고 선뜻 대답했다. 이후에 누가 물으면 황선생의 그 제안을 듣고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말하곤 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은 누구나 한번 가져볼 만한 것이라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수긍하는 표정들을 지었다.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 들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황선생의 전화를 받던 저녁에도, 그리고 이제 와 돌아볼 때에도 그게 다는 아니었다. 내가 아무리 충동적인 사람이라 한들 그럴 리는 없었다.

[선택추가] 포털 도서정보

도서명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



★★★★☆ 8.67 | 네티즌리뷰 10건

저자 오현종 | 문학동네 | 2017.03.30
 페이지 228 | ISBN 9788954644822 | 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관 소장 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10,800원 12,000원 -10%

e북 7,560원 8,400원 -10%

구매예택 상세보기 >

♡ 9



신청자명
출판사명
발행일
[연, 월, 일]
ISBN

책정보

출판사 서평

네티즌 리뷰

가격정보

책소개

등단 19년 차, 마흔다섯 살, 여성……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 소설가 오현종의 내면 고백

스쳐가는 무수한 감정이 인생에 생채기를 내는 순간들을 세밀한 시선으로 포착한 소설가 오현종의 세번째 소설집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가 출간되었다. 그간 발표해온 작품들로 오현종은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변용하며 한국소설의 지평을 넓혀온 작가로 평해지곤 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의 상상력이 극한으로 뻗어나간 후에도 그 끝은 다시 일상과 맞닿아왔다는 사실이다. 이번 소설집에서도 오현종 단편 특유의 기발한 서사는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녀가 드디어 소설가로서 자신의 자의식과 내면의 상처를 소설 속에 솔직히 녹여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며 광대였지』는 지금까지의 오현종 소설 세계에 대한 작가 자신의 코멘터리와도 같으며, 근 이십 년간 이어져온 오현종 소설의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뚜렷한 전환점이기도 하다.